한국고전연구 71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5/215~246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5.71.215

옥천 조덕린의 삶과 시 세계*

윤재환**

<차 례>

1. 서론
2. 조덕린 삶의 결정적인 국면
3. 문학 인식과 시 세계의 특징
4. 결론

〈국문초록〉

조덕린은 조선 후기 노론 집권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고난받았던 영남 지역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생애가 그럴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작품으로 보았을 때도 역시 그렇다. 따라서 그를 조선 후기 당대 노론 집권 세력에 의해 고난받았던 영남 지역의 학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아 전하는 기록이나 그가 남긴 문집으로 보았을 때 이런 평가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창작한 문학 작품을 도외시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될 수 없다.

불과 244수에 지나지 않는 그의 시는 감정을 이면에 감추어 감상적이기보다 이성적이지만, 그의 시는 그가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무미건조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 속에는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추구했던 주지적이고 이지적인 이미지 중심의 표현 기법은 그의 시를 평면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소리를 억제하고 역동적인 표현을 배제한 그의 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조덕린의 시를 보면 그의 시가 그의 삶과 같은 궤에 있는 것으로, 문학적 성과보다 삶의 진실을 담고자 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조덕린의 시에 드러나는 감정은 진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급격한 파동을 타고 격렬한 파장을

* 이 글은 2025년 10월 21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옥천 조덕린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www.kci.go.kr

그리지 않는 그의 시가 오히려 더 깊고 긴 여운을 보여준다.

조덕린의 시를 보면 그의 시가 문학적 성과보다 삶의 진실을 담고자 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시가 일정한 성취를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시는 문인의 시라기보다는 수양된 인격을 지닌 학자의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는 작가 의식을 지닌 문인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학자로 간주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그의 시를 학자의 시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옥천 조덕린, 옥천선생문집, 시 세계, 을사 상소, 영남 남인

1. 서론

조덕린(趙德鄰; 1658~1737, 효종 9~영조 13)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의 한 사람이다. 조덕린이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해당하는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쳤으며, 참찬관(參贊官)으로 소대(召對)에 참여했으니, 그가 역임한 관직을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서(判書)나 정승(政丞)의 직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니, 관리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조덕린은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전반의 정국(政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그가 68세 되던 1725년(영조 1) 올린 한 편의 상소문 때문인데, 이 상소로 인해 그는 이후 운명할 때까지 지속적인 정치적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운명 이후로도 관작의 회복과 추탈을 반복하다가 1899년(고종 37)이 되어서야 복관될 수 있었다.

조덕린의 삶을 곤경으로 몰아넣은 을사년의 상소는 1725년 10월 안동에서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을 사직하며 올린 시무(時務) 10조의 상소인데,[1] 이 상소에 대해 영조는 “지극히 교묘하고도 치밀하며, 해괴하고도

1) 이 상소의 유형에 대해 辭職上疏와 應旨上疏로 보는 두 의견이 있지만, 『玉川集』

www.kci.go.kr

이치에 어긋난 말이고, 함부로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일을 이용하여 제 뜻대로 하면서 동인(東人)도 아니고 서인(西人)도 아닌 척하며 의혹을 일으킬 계획을 행하려고 하였으니, 진실로 통탄하고 해괴한 일"[2]이라고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고 조덕린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도록 했으며, 사관은 이 상소에 대해 "임금의 총명을 현란(眩亂)시키고 군자(君子)를 해치려고 하여 그 말의 아주 패리(悖理)하고 음흉(陰凶)하다."[3]라고 하였다.

조덕린의 상소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당대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 계열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위기감 특히 영조 즉위 이후의 정국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조덕린의 상소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이다. 그런데 조덕린은 이 상소 이후 사판에서 삭출되고 종성(鍾城)으로 유배되는 정치적 곤경을 겪었으면서도 3년 뒤에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에서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로 난을 평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자신이 겪은 정치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난(危難)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인식과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736년(영조 12) 송시열(宋時烈)의 문묘 배향을 청하는 진사 신헌(申鑑)의 상소가 올라오면서 다시 그의 을사년 상소가 논란이 되었고, 이듬해 김성탁(金聖鐸)이 자신의 스승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을 신구(伸救)하는 상소가 문제 되면서 조덕린은 이 모든 사안의 원흉으로 거론되어 1737년(영조 13) 6월 80세의 나이로 제주도(濟州道) 안치(安置)의 명을 받

4권에 수록된 상소의 제목이 「辭司諫院司諫疏 乙巳十月」로 사직상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글의 형식도 응지상소의 일반적인 격식에 부합하지 않아 사직상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상소는 辭職上疏 중에서도 時務辭職上疏로 보인다.

2) 『영조실록』, 영조 1년 10월 20일 甲申 3번째 기사, "其所下語, 極爲巧密. …… 尤亦駭悖矣. …… 德隣妄揣君意, 因事逞志, 不東不西, 欲售疑亂之計, 誠可痛駭."

3) 『영조실록』, 영조 1년 10월 20일 甲申 3번째 기사, "眩亂上聰, 戕殺君子, 而其言之絶悖陰凶."

www.kci.go.kr

고 가다가 7월 강진현(康津縣)에서 운명하였다.

조덕린의 삶은 그가 당대 남인 계열을 대표하는 관료가 아니었음에도 그가 당대 집권 노론 세력의 주목과 견제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당대 그가 지니고 있었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조덕린은 생존 당시부터 지금까지 절의의 표상으로 추존되는데, 이와 같은 평가에는 당대 상소로 인해 정치적 고난을 겪었던 그의 삶과 함께 그가 퇴계 이후 이어지는 영남의 학맥을 이었고, 사미당(四未堂)과 창주정사(滄洲精舍)를 통해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조덕린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다른 한 편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등한히 여기게 만들 우려가 있다. 사실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그를 문인이나 작가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18권 9책으로 이루어진 그의 문집에서 시는 권 1과 2에 167제 244수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고, 문학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산문 작품도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문학적 성취를 살펴볼 수 있는 시와 문이 남아있는 이상 그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등한시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조덕린에 대한 입체적 조망을 위해서는 그의 문학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 지식인 대부분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문학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문학이 그 인물의 의식과 정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문학이 지니는 이와 같은 성격을 고려하여 시문학을 중심으로 조덕린의 문학세계를 살펴, 조덕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도록 한다. 이 글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4] 조덕린에 대한 이

4) 현재 조덕린을 중심에 둔 연구는 金周漢의 「趙德鄰의 文學世界(『인문연구』 1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와 최은주의 「玉川 趙德鄰의 親族 관련 祭文에 나타난 애도방식과 의미(『가족과 커뮤니티』 1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www.kci.go.kr

해의 증진 그리고 후속 연구의 기초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조덕린에 대한 연구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분야에 우선하여 먼저 그의 문학에 다가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문학을 통해 그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여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덕린의 문학세계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그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국면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 이어 시문학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검토를 위한 기본 자료는 조덕린의 문집인 『옥천선생문집(玉川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46-가1280)』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175권의 『옥천집(玉川集)』으로 하고, 이 문집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23년 『영남선현문집국역총서』 70으로 번역 간행한 『옥천선생문집』을 보조 자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 글이 조덕린에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조덕린 삶의 결정적인 국면

조덕린의 생애는 그의 문집 18권 부록에 있는 이상정(李象靖)의 행장(行狀)과 채제공(蔡濟恭)의 묘갈명(墓碣銘)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편의 글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조덕린의 관향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택인(宅仁), 호는 옥천(玉川)이다. 고려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를 지낸 조지수(趙之壽)를 시조로 하며, 이후 용원부원군(龍源府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외에 조덕린 관련 연구로는 안병걸의 「조덕순·조덕린 형제의 삶과 생각(『영양 주실 마을』,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예문서원, 2001.)」과 김문식의 「조선후기 경남과 영남의 교류 양상 - 영양 주실의 한양조씨가를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 1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가 있을 뿐이다.

www.kci.go.kr

院君)에 봉해진 5세 조인벽(趙仁璧)과 그의 아들로 조선에 들어 한평군(漢平君)에 봉해진 조연(趙涓)을 거쳐 11세 조원(趙源)이 영양(英陽)에 거주하면서 그의 가문은 영양을 세거지로 하게 되었다. 조원이 조덕린의 5대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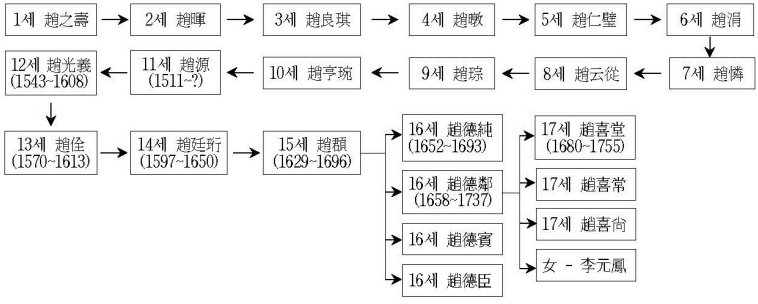
조원은 장례원 판결사를 지낸 약산당(約山堂) 조광의(趙光義)를 낳았고, 조광의는 예빈시 직장을 지낸 호은(壺隱) 조전(趙佺)을 낳았으며, 조전은 진사 조정형(趙廷珩; 1598~1650)을 낳았고, 조정형은 장사랑 조군(趙頵; 1629~1696)을 낳았는데, 이분이 조덕린의 부친이다. 조군은 유성룡(柳成龍)의 형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한 풍산유씨 겸암(謙庵) 유운룡(柳雲龍)의 후손인 선교랑 유세장(柳世長)의 따님과 혼인하여 조덕순(趙德純; 1652~1693)·조덕린(趙德鄰; 1658~1737)·조덕빈(趙德賓)·조덕신(趙德臣)을 낳았다.

큰아들인 조덕순은 자를 현부(顯夫) 또는 현보(顯甫), 호를 호봉(壺峯)이라고 하는데, 1652년(효종 3) 영양에서 태어났으며, 1679년 생원시에 합격했고, 1690년(숙종 16) 문과에 급제했으며,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을 지냈다. 부인으로 남천두(南天斗)의 따님인 영양남씨(英陽南氏), 김필명(金必鳴)의 따님인 선산김씨(善山金氏), 진사(進士) 정채(鄭寀)의 따님인 초계정씨(草溪鄭氏)를 두었다. 조덕순은 문장에 뛰어났고 필법이 묘연하여 고시관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조덕순의 문장을 구전으로 암송하며 전승했다고 한다. 이 외에 조덕빈과 조덕신에 관해서는 살펴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조덕린은 태사 권행(權幸)의 후손으로 권수하(權壽夏; 1621~1661)의 따님이며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의 외손녀인 안동권씨와 진사 강필명(姜必明; 1645~?)의 따님인 진주강씨를 부인으로 맞았으나 안동권씨에게서만 조희당(趙喜堂; 1680~1755)·조희상(趙喜常)·조희상(趙喜尙) 세 아들과 이원봉(李元鳳)에게 출가한 딸 하나를 두었다. 이와 같은 세대 전승

www.kci.go.kr

과정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玉川 趙德鄰 世系圖

조덕린은 1658년(효종 9) 12월 1일 영양현 주곡리에서 조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덕린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학문에 뜻이 있어 번거롭게 학문을 독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7세에 숙부 조병(趙瓶)에게, 9세에 외조부 유세장에게 학문을 익히면서 독서를 통해 학문의 폭을 넓혔는데, 이렇게 보면 조덕린의 학문은 가학을 바탕으로 한 독서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청량산(淸凉山)과 도산서원에서 강학하고 경옥재(景玉齋) 이보(李簠; 1629~1710)에게 과문(科文)을 익히며 과거를 준비하여 19세에 향시에 합격하고 20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이듬해 성균관에서 유학하였다. 이 시기 이후 1691년(숙종 17) 34세로 증광시에 합격하여 승문원 정자가 될 때까지 조덕린은 무난하고 순탄한 수학기를 가졌다. 이 기간 중인 1690년(숙종 16) 조덕린은 처음으로 이현일을 뵙고 조부 조정형의 묘갈을 청했다.

1691년 이후 조덕린은 관직 생활을 했지만, 그의 관직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역임한 승문원 정자·가주서(假注書)·제원역승(濟源驛丞)·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와 같은 관직이 문과

www.kci.go.kr

급제자들 대부분이 거쳐 가는 관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덕린이 문관계의 정6품 관직인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으면서 1708년(숙종 34) 51세로 강원(江原) 도사(都事)에 제수될 때까지 벼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애초 조덕린은 관직에 별다른 뜻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조덕린은 52세에 고산(孤山) 현감(縣監), 54세에 황해(黃海) 도사(都事), 59세에 충청(忠淸) 도사(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거나 나갔다고 하더라도 곧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725년(영조 1) 조덕린은 68세의 나이로 다시 수찬과 필선, 교리에 누차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 해 10월 사간에 제수 되자 그는 안동에서 명성학(明聖學)·수실덕(修實德)·정선임(精選任)·정명실(正名實) 등에 관한 10조의 시무 상소를 올리면서 사직을 청했다. 이 상소에 대해 당시 노론 집권 세력은 당쟁의 폐해를 논하면서 노론의 득세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조덕린을 탄핵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조덕린의 상소 이후 조덕린을 비판하는 조정의 논의가 10월 20일부터 다음 해 8월 27일까지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당대 집권 노론 세력에게 조덕린의 상소가 무겁게 다가왔고, 노론 집권 세력이 그 상소가 불러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덕린의 생애는 이 상소로 인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조덕린은 상소한 그해 겨울 함경북도 종성(鍾城)으로 유배되어 약 2년에 가까운 유배 생활을 하다가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少論)이 집권한 이후인 1727년 7월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후 조덕린은 집의·응교·사간·수찬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조덕린은 1728년(영조 4) 3월 호서(湖西)에서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 그를 영남상도 호소사(嶺南上道號召使)에 제수하자 벼슬을 받아 안음(安陰)·거장(居昌) 등의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조덕린은 이 이후

www.kci.go.kr

에 동부승지가 되고 참찬관으로 소대(召對)에 참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는 우부승지와 병조 참의, 참지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고, 낙동강(洛東江) 상류에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지어 기거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닦고 후학의 교육에 매진하였다.

하지만 조덕린의 평온한 삶은 1736년(영조 12) 가을 무렵 1725년 10월에 그가 올린 상소에 대해 경상도의 진사(進士) 신헌(申櫶)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론 대신 김한철(金漢喆)이 탄핵하면서 끝나게 된다. 김한철은 "조덕린이 이전에 올린 한 통의 소장은 모두 요사하고 패려한 말이었는데, 정명(正名)이라는 두 글자를 거론한 것은 더욱 흉악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흉적이 쓴 격서(檄書)의 효시(嚆矢)이고 괘서(掛書)의 근저(根柢)였는데, 큰 역적이 법망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물정(物情)이 오래도록 놀라고 있으니, 절도(絶島)에 정배시키십시오."[5]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예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은 "조덕린(趙德隣)이 을사년에 올린 소장의 내용 가운데 '명실을 바룬다[正名實]'라고 한 조항은 그 말뜻에 비상한 것이 있으니, 무신년 역란(逆亂)의 효시(嚆矢)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덕린은 영남의 선비들 가운데 조금 성망(聲望)이 있으니, 뒷날 흉역의 여얼(餘孼)들이 이를 구실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6]라고 하며 조덕린을 추국하도록 청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에 따라 조덕린은 그해 9월 국문을 당했으나 그는 국문에서 자신의 상소가 윤돈(尹焞)과 주자(朱子)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정명(正名)은 『논어(論語)』에 나온 말이며 정명실(正名實)은 전기(傳記)와 백가

5) 『영조실록』, 영조 12년 8월 23일 甲申 1번째 기사, "趙德隣頃年一疏, 無非妖言悖說, 正名二字, 尤極凶慘. 此實賊檄之嚆矢, 掛書之根柢, 吞舟漏網, 物情久駭, 請絶島定配."

6) 『영조실록』, 영조 12년 9월 3일 甲午 2번째 기사, "趙德隣乙巳疏中, 正名實一條, 語意非常, 雖謂之戊申逆亂之嚆矢, 不爲過矣. 況德隣嶺士中薄有聲望, 他日凶逆餘孼, 難保其不藉口."

www.kci.go.kr

(百家)의 글에 뒤섞여 보이는 것으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상소의 내용에 시류(時流)들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많았으므로, 권세에 빌붙는 무리들이 상소의 구절을 따서 스스로 조정에 진출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고 도하(都下)에서 창언(唱言)했습니다. 이에 당시의 상신이 그 말을 듣고 전하며 신에게 상소하여 변명하게 하였습니다만, 신의 생각으로 망측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의심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묵묵히 자정(自靖)하고 있었을 뿐입니다.”[7]라고 했다.

조덕린의 답을 들은 영조는 조덕린의 을사년 상소가 사의(私意)를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의혹을 말끔하게 씻은 것은 아니지만 방면(放免)하도록 처분했다. 이에 대해 사헌부에서는 조덕린의 상소에 함축된 내용이 많으니 완전히 석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강관(講官) 심성진(沈星鎭)은 조덕린의 상소 내용이 음흉하고 교활하니 석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나 영조는 듣지 않았다. 그러나 조덕린에 대한 노론 세력의 탄핵은 다음 해 5월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무렵 교리(校理) 김성탁(金聖鐸)이 그의 스승 이현일(李玄逸)을 신구(伸救)하는 상소를 올리자 노론 세력은 김성탁을 국문하도록 청했다. 이때 김정윤(金挺潤)이 이 모든 폐단의 원흉으로 조덕린을 지목하는 상소를 올렸고, 노론 세력은 그를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해 6월 조덕린은 끝내 제주도에 안치한다는 명을 받고 길을 떠났으나, 영암(靈巖)에 도착하여 앓은 이질(痢疾)이 강진(康津)에 이르러 더욱 심해져 7월 20일 마침내 강진현 해창(海倉)의 후풍관(候風館)에서 운명하였다.

이렇게 조덕린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7) 『영조실록』, 영조 12년 9월 11일 壬寅 4번째 기사, “第其疏語觸忤時流者多, 故附勢之徒, 抉摘言句, 以爲獻身之資, 唱於都下. 時相聞之送言, 使之疏辨, 而臣意則以罔測之言疑人者, 此其所自爲者, 故默默自靖而已.”

www.kci.go.kr

거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을 1725년 68세에 올린 상소를 계기로 둘로 나누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68세 이전 드러난 조덕린의 삶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가문의 유지를 위해 또는 자신의 역량 확인을 위해 관직에 나갔으나 관직에 별다른 뜻을 두지 않았던 선비·학자의 삶이 보여주는 대체적인 유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68세의 상소 이후 조덕린은 집권 노론 세력에 대항하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런 변화를 조덕린 스스로가 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그는 그렇게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그 첫째는 그가 68세의 나이에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린 이유이다. 그가 사직 상소를 올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이 상소가 영조의 구언(求言)에 답하는 응지상소(應旨上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조덕린이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는 이 상소에 대한 노론 집권 세력의 반응이다. 최초 그의 상소가 올라갔을 때 노론 집권 세력은 단순히 상소의 내용이 패악하다거나 음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원배(遠配)를 청했을 뿐이었는데, 1736년(영조 12) 가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조덕린의 상소에 나온 정명(正名)이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물론 이 시기 노론 집권 세력이 조덕린의 상소를 새롭게 문제 삼은 것은 김한철이 "이번 영남 유생의 상소로 살펴보더라도 그는 흉악한 성품을 뉘우치지 않고 더욱 사납게 독기를 부려, 괴상망측한 의론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떠맡지 않음이 없고 흉악하고 패려한 상소는 거의 모두 앞장서서 몰래 사주하였으니, 도 전체의 인심을 속이고 미혹하여 타락시킨 것이 모두 조덕린의 소행입니다. 이런데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8]라고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덕

8)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8월 23일 갑신, "今番嶺儒疏觀之, 其不悛梟性, 益肆狼毒, 怪鬼之論, 無不攘臂擔當, 凶悖之疏, 擧皆挺身陰嗾, 使一道人心, 誑惑陷溺者, 莫

www.kci.go.kr

린을 당시 영남 남인 세력의 배후 조종자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그의 상소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정명(正名)이라는 내용을 문제 삼은 이유는 밝혀야 한다. 그것은 이 내용이 당대 노론 집권 세력이 지니고 있었던 위기감 또는 불안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덕린의 을사년 상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글이 그의 생애와 문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기약하고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조덕린의 생애 정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그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지향에 관한 것이다. 그가 제수된 관직 대부분에 대해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과 사미당(四未堂)과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지어 학문하고 후학을 양성했다는 것은, 그의 지향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자수(自修)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을사년의 상소로 정치적 고난을 겪었음에도 이인좌의 난에서 호소사의 직책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가 신하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지녔고 그 인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자신의 상소에 대해 수많은 논란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 변명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강한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문학 인식과 시 세계의 특징

조덕린이 위기지학의 학문에 뜻을 둔 강한 기질의 소유자였으며, 관직과 같은 현실적인 이익이나 명예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해서 그의 문학적 성취를 낮추어볼 수는 없다. 이는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가 창작한 문학 작품이 반드시 높은 성취를 보여주지 않는 것과도 같은

非德鄰之所爲, 此而置之, 前頭之憂, 有不可勝言."

www.kci.go.kr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문집에서 문학에 관한 그의 언급을 살펴보면 그가 문학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두 눈동자는 빛나는 것 같고 총명은 남보다 뛰어나 눈으로 보면 바로 외웠고 붓을 잡으면 곧장 써 내려가 시문의 문채가 모두 극진하였다. 경전의 뜻에 대해서는 반드시 탐구하고 궁구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취는 반드시 흠모하여 실제로 체득하였으며 약관의 나이에 이미 명성이 있었으니 고산 이유장이 보고 탄복하기를 "동남의 문맥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 사방의 선비들이 와서 글을 청하면 사양하였으나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실상만을 써 주었으며, 의리에 맞지 않는 것은 한 마디도 더하지 않았고 마음에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한 자도 쓰지 않았다. 문장을 지을 때 처음에는 『좌전』·『국어』·『한서』·『사기』에서부터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 및 명나라의 몇몇 인물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따랐으나 경전에 절충하여 세속의 진부한 모습을 제거하였으며, 만년에는 주자서를 좋아하여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장주는 의리에 근거하여 명백하고도 간절하니 학사 강박이 일찍이 "국조 이래로 비교할 만한 사람이 드물다."라고 칭찬하였다. 성품이 시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때때로 혹 흥이 일어나면 시를 지었으니 관동에서 지은 여러 작품과 <창주잡영>은 후세에 보는 사람들이 그 시에서 묘사한 한적한 정취를 잘 알 수 있다. 시대를 아파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은 늙어서도 줄어들지 않아 늘 성스러운 임금의 관대한 모습과 너그러운 은혜를 읊었으며 자손들에게 대대로 보답할 생각을 하도록 가르쳤다. 필법은 정밀하고 반듯하며 굳세어 문장을 짓는 것과 같았다.[9]

9) 李象靖, 「行狀」, 『玉川先生文集』 卷 18, "雙眸如射, 聰明過人, 過目成誦, 操筆立書, 辭采俱盡. 經訓則必探討而力究, 美蹟則必歆慕而實體, 弱冠已有聲, 李孤山惟樟嘗見而歎曰, 東南文脈. …… 四方之士, 來請文字, 辭而不得, 則必摭實紀行, 義所不愜, 一言不饒也, 心所不然, 一字不動也. 爲文章, 初從左國斑馬, 至於韓柳歐蘇及皇明諸子, 折衷於經傳, 絶去世俗陳腐之態, 晩嗜朱子書, 讀之不倦. 章奏則根據義理, 明白懇切, 姜學士樸, 嘗稱之謂國朝以來, 罕有其比云. 性不喜爲詩, 間或遇興而發, 關東諸作, 滄洲雜詠, 後之觀者, 足以得其模寫蕭散之趣矣. 傷時戀君之情, 至老不衰, 每頌聖主之優容寬典, 而勅子孫以世世思報也. 筆法精楷遒勁, 如其爲文."

www.kci.go.kr

위의 글은 이상정이 쓴 행장에 나오는 조덕린의 문학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글의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완전하게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글을 통해 조덕린의 문학적 취향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가 유가의 경전과 주자의 글을 문학의 기준으로 두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장의 창작에서 의리를 중심에 두고 실상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담으려 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간결하고 명백한 내용 중심의 문학 작품을 창작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흥에 유도된 자연스러운 시의 창작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학을 대하는 조덕린의 태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학자 혹은 도학자의 태도와 유사하다. 이런 모습은 문학에 대한 조덕린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느낀 것을 담아낸 시들이 꾸밈을 일삼지 않았으나 충의가 꿋꿋하였다. 상심하여 지은 작품들은 기세가 힘찼으며 화평한 시들은 명백하고도 통달하여 한결같이 성정의 바름, 聲氣의 근원에서 나왔으니 붓을 휘두르며 문장을 짓는 선비들이 깃털을 새기고 잎을 조각하여 기이함을 뽐내고 화려함을 자랑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총애를 얻는 것과 달랐다. 상소와 논의하는 사이의 글을 보면 일을 두루 꿰어 조리 있게 정곡을 찔렀고 신의를 이행하고 순리를 생각하여 도리에 거스른 일이 없었다. 일을 맡아 공을 세워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 거두고 넓혔으니, 이것이 어찌 선생의 쉬운 글과 體用의 학문이 모두 실용에 적합해서가 아니겠는가. 의주에서 天將에게 선물을 보내고 손님을 응대했던 일을 시로 드러내고 편지로 부친 것이 많은데 일을 논한 것은 실정과 사리에 맞았고 예를 올린 것은 정성스러움을 다하였다. …… 진실로 덕이 있고 훌륭한 말도 남겼는데 문장과 실제 행실 중 무엇이 작고 무엇이 큰지는 반드시 분변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10]

10) 趙德鄰, 「藥圃鄭先生文集序」, 『玉川先生文集』 卷 7, "其篇章詩什, 觸感而發者, 不事雕飾, 而忠義凜然. 感傷之作, 發揚蹈厲, 和平之音, 明白洞達, 一出於性情之正聲氣之元, 非若舞筆弄文之士刻羽而雕葉, 逞奇而鬬靡, 以譁世取寵而已也. 其見於章疏議讞之間者, 經事綜物, 鑿鑿中窾, 履信思順, 物無違忤. 趨事赴功, 有以

www.kci.go.kr

선생은 천지의 精粹한 기운을 부여받고 시와 예를 익히는 유학자의 가문에서 태어나 먹고 숨 쉬는 모든 행동이 典訓의 안을 벗어나지 않았다. …… 그가 지은 문장은 평이하면서도 법도가 있었고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이치가 저절로 이르렀으며, 시 또한 맑고 원대하며 고요하고 한적하여 화려함으로 흐르지 않았으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실제로 일삼는 바가 있는 것이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하늘이 몇 년을 빌려주어 끝내 그 뜻을 이루게 하였다면 보존하고 세운 것이 어찌 이와 같을 뿐이었겠는가. …… 선생의 학문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고, 선생의 사업은 문자에 기대지 않아도 세워지는 것이다. …… 그 외에 불에 탄 나머지에서 얻은 온전치 못한 짧은 글들은 비록 그 완전한 문장을 볼 수는 없지만 또한 그 한 부분이라도 살펴볼 수 있으니, 이와 같다면 세상에 전해지고 후세에 행해질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11]

지은 문장이 典雅하고 깊이 있었으며 자기에게 절실하고 내면에 가까웠으니 다 빈말이 아니었다. …… 和順함이 마음속에 쌓여 영화가 찬란히 드러나고 맑고 밝음이 몸에 있어 문채가 환하게 빛나니, 문장과 시 사이에 드러난 것이 마음을 기른 공부가 두터운 데서 넘쳐난 것이고 성정이 바름에 근본한 것이다.[12]

선생의 시는 볼 수 있는 것이 한 수에 불과하지만, 격식이 순수하고 古雅하며 거리낌 없이 솔직하여 큰 솥의 한 점 고기가 되기에 충분하니 또 어찌 반드시

合衆心而收恢拓, 則此豈非先生菽粟之文體用之學, 皆適於實用者耶. 若其龍灣之餞迓天將, 應對賓介, 形之吟咏, 寓之牋札者率多, 論事合機宜, 拜嘉輸款誠. …… 信乎有德有言, 而其文其實, 孰小孰大, 必有能辨之者."

11) 趙德鄰, 「近始齋金先生文集序」, 『玉川先生文集』 卷 7, "先生稟天地精粹之氣, 生鄒魯詩禮之庭, 動靜食息, 不離典訓之內. …… 其爲文平鋪典實, 不事雕鏤而理自到, 詩亦淸遠蕭散, 而不流於浮靡, 見之者皆知其實有所事, 而非空言也. 若使天假之年, 卒就其志, 則其所存所立, 豈若是而已耶. …… 先生之學, 有不可言語而傳, 先生之事業, 有不待文字而立. …… 其他斷簡片言得於壞爛之餘者, 雖不能見其全文, 亦足以窺其一斑, 則若是而傳世行後無疑."

12) 趙德鄰, 「修巖柳先生文集序」, 『玉川先生文集』 卷 7, "爲文典雅淵深, 切己近裏, 皆不爲空言. …… 蓋和順積中, 英華彪炳, 淸明在躬, 符彩晬盎, 而其發之篇章吟咏之間者, 溢於充養之厚, 原於性情之正."

www.kci.go.kr

많기를 구하겠는가.[13]

세상에서 시를 작은 道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경』 삼백 편은 대체로 마을과 거리의 노래로 만든 것이다. 공자께서 刪削하고 정리하여 六經의 반열에 끼우고 萬世에 드리워 사람들이 탄식하고 읊조리며 감발하고 흥기하여 性情의 바름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풍속을 바꾼다는 것은 시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그 도가 또 어찌 작은 것이겠는가. 저 문사만을 일삼는 자들은 소견이 좁을 뿐이라 작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 지금 열 편의 시는 편마다 각각 5언고시 8구로 되어있고 편마다 각각 짧은 서문이 앞에 있는데 서문은 간략하고도 예스럽고 시는 질박하면서도 미더우니 은은하게 『시경』 삼백 편의 여운이 있다. 溫柔敦厚한 것이 대체로 詩教의 가르침에서 얻은 듯하여 주자가 남긴 뜻과 몹시 잘 맞으니, 진실로 이 고을 사람이 집에 보관하여 사람마다 외우고 가다듬어 닦고 興起하게 한다면, 그 가르침이 영세토록 베풀어질 수 있을 것이며 궁벽하고 누추한 산골의 산천초목도 밝게 빛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14]

위에서 인용한 다섯 편의 글은 모두 조덕린의 문집에 나오는 것으로, 문학에 대해 그가 언급한 내용의 거의 전부이다. 18권 9책에서 문학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 자체가 문학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양이 많지 않아 그 내용을 모두 인용해 보았다. 첫 번째 글은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문집 서문으로 쓴 「약포정선생문집

13) 趙德鄰, 「凝溪玉公先生實紀序」, 『玉川先生文集』 卷 7, “先生之詩, 可見者一首, 而格令醇古, 胸懷坦然, 足以爲大鼎之一臠, 又奚必求多焉.”

14) 趙德鄰, 「姜侯英陽十詠序 甲辰」, 『玉川先生文集』 卷 7, “世謂詩爲小道, 然詩三百篇, 大抵多里巷歌謠之作也. 夫子刪而序之, 列於六經, 垂萬世, 使人咨嗟詠歎, 感發興起, 而得其情性之正. 則所謂移風易俗, 莫善於詩, 而其爲道, 又曷可小哉. 彼以文辭而已者陋焉爾, 其少之也卽宜. …… 今十篇詩, 篇各爲五言古八句, 而篇各有小序冠之, 序簡而古, 詩質而信, 隱然有三百篇之餘音. 而其溫柔敦厚, 蓋得於詩教, 深有契乎朱夫子之遺意, 誠使此邑之人, 家藏而人誦之, 有以砥礪而興起焉, 則其爲教可施於永世, 而僻陋之山川草木, 亦無不光燄矣.”

www.kci.go.kr

서(藥圃鄭先生文集序)」, 두 번째는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의 문집 서문인 「근시재김선생문집서(近始齋金先生文集序)」, 세 번째는 수암(修巖) 유진(柳袗)의 문집 서문인 「수암유선생문집서(修巖柳先生文集序)」, 네 번째는 응계(凝溪) 옥고(玉沽)의 실기 서문인 「응계옥공선생실기서(凝溪玉公先生實紀序)」, 다섯 번째는 강박(姜樸)이 지은 <영양십영(英陽十詠)>의 서문인 「강후영양십영서(姜侯英陽十詠序)」의 일부이다.

인용한 다섯 편의 글 중에서 앞의 네 편을 보면 조덕린은 평이하면서도 법도가 있고 꾸미지 않아도 이치가 저절로 이르며, 전아하면서도 깊이 있고 실상에 부합 하며, 정곡을 찌르면서 도리에 합당한 문장을 높이 보았고, 격식이 순수하고 고아(古雅)하며 거리낌 없이 솔직하고, 맑고 원대하며 고요하고 한적하되 화려하지 않으며, 명백하고도 통달하여 꾸밈을 일삼지 않는 시를 좋은 시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덕린은 기괴하거나 첨신한 또 화려하거나 잘 꾸민 새로운 경향의 시문이 아니라 격식에 맞는 평이한 형식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진솔한 감정과 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시문을 높이 보았고 이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글을 보면 조덕린이 시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시의 문학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 효용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덕린은 시가 풍속을 바루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사회적 효용을 중심에 두지 않는 시는 가치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조덕린이 추구한 문학은 내용 중심의 효용적 문학으로 조선을 관통해 이어졌던 유가(儒家)의 전통적인 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문학에 앞서 도덕을 두고, 개인의 수양과 사회적 효용을 목적으로 하여 형식보다 내용을 중심에 두며, 수식과 조탁(彫琢)보다 감정의 진실과 사건의 실상을 우선하는 문학을 추구했다는 것은 그에게 문학은 언제나 도덕과 수양의 다음에 놓이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www.kci.go.kr

그래서인지 조덕린의 문집에는 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약관의 나이에 이미 시문으로 명성을 떨쳤고 80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서 그의 문집에 남은 시가 모두 167제 244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가 시의 창작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문집에 수록된 시가 1692년 35세 봄부터 시작하여 운명하던 1737년 봄까지 창작된 시라는 점에서 그의 시 창작은 생애 전 시기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고 여기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근거로 그가 창작한 시의 문학적 성취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에 대한 관심이나 남긴 시의 양이 창작한 시의 문학적 성취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시가 이룩한 문학적 성취는 그의 시를 직접 살펴 확인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조덕린의 문집에는 모두 167제 244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권 1에 105제 124수, 권 2에 62제 120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형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5언고시 13제 15수(1권 5제 7수, 2권 8제 8수), 7언고시 1제 1수(2권), 5언절구 15제 42수(1권 7제 8수, 2권 8제 34수), 7언절구 35제 65수(1권 23제 27수, 2권 12제 38수), 5언율시 22제 29수(1권 12제 19수, 2권 10제 10수), 7언율시 80제 87수(1권 58제 63수, 2권 22제 24수) 그리고 문집에서 138번째 수록된 권 2의 <창주정사잡영(滄洲精舍雜詠)>이 7언절구 3수와 7언율시 2수의 5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문집에 남아 전하는 조덕린 시의 형식은 7언율시 > 7언절구 > 5언절구 > 5언율시 > 5언고시 > 7언고시의 순서가 된다. 하지만 근체시에서 7언시의 창작을 위주로 하고 고시에서 5언시의 창작을 위주로 하는 것은 당대의 보편적인 창작 경향이었기 때문에 이를 조덕린만의 특별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조덕린의 시가 형식적인 면에서 당대의 보편적인 창작 경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내용의 유형적 분류로 보면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적 분류로 볼 때 조덕린의 시에서 가장 많은

www.kci.go.kr

양을 차지하는 시는 만시(挽詩)이다. 전체 63제 70수의 시가 만시여서, 문집에 전하는 시 244수의 약 29%가 만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시는 차·화운시이다. 조덕린의 시에서 차·화운시가 모두 38제 51수여서 만시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전체의 약 21%에 해당한다. 또 조덕린의 시에는 증여시가 모두 29제 41수 있다. 이 증여시 중에서 10제 10수의 시가 차·화운시와 중복되어, 중복되는 시를 빼면 증여시는 모두 19제 31수가 된다. 그렇다면 조덕린의 시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창작하는 증여시와 차·화운시가 모두 57제 82수가 된다. 그런데 만시 역시 상대와의 관계에서 창작되는 시이라는 점에서 증여시와 차·화운시 그리고 63제 70수의 만시를 더해보면 120제 152수, 즉 전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시가 상대와의 관계에서 창작된 시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시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조덕린 시의 유형적 특징을 보면 그는 흔히 시인으로 거론되는 작가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관계성을 중심에 두는 시에도 조덕린의 다양한 정서가 담긴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시들의 경우 시의 창작 의도를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發露)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시들의 경우 다양한 관계에 의해 또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한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모습은 그의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의 문학 인식 또는 시문학관과 같은 것으로, 그를 문인이라기보다 학자로 규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학자 조덕린의 시가 이룩한 문학적 성취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은 그의 시를 직접 살펴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그의 시 중에서 관계성보다 순수한 개인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런 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시가 조덕린 시의 문학적 성과를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이다. 시를 보도록 한다.

www.kci.go.kr

梅花欲綻柳含黃　　매화 피려 하고 버들은 누렇게 물들며
山鳥嚶鳴春晝長　　산새 울어대어 봄의 낮은 길기만 한데
小几淸香無一事　　맑은 향기 작은 책상 일삼을 것 없으니
好將遲暮慰年芳　　봄의 위로 받는 노인 좋기만 하네.

溪響巖廻咽　　개울은 바위 휘돌아 소리 울리고
山容雨洗眞　　산은 비에 씻겨 진면목을 보이며
農人燒隴畔　　농부는 밭두둑에 불을 놓으니
遙憶故園春　　아득히 고향의 봄 떠오르누나.

朝起公館淸　　아침에 일어나니 관사가 맑디맑아
煩襟時暫豁　　답답한 마음 이때 되어 잠시 트이는데
白雲下山腰　　흰 구름도 산허리로 내려와
露出蒼一抹　　짙푸른 산 한 줄기가 환히 보이네.

秋風霽景弄朝暉　　갈바람 속 맑은 경치 아침 햇살 어른거려
起傍溪山負杖歸　　일어나 계산 옆으로 지팡이 짚고 되가는데
鷗鳥亦知塵事去　　갈매기도 세상일을 떠난 줄 알아선지
時來故故近前飛　　때로 자꾸 찾아와서 내 가까이 날아가네.

인용한 네 수의 시는 순서대로 문집의 22번째에 수록된 <2월 산에서[山居二月]>, 31번째 수록된 <원주 안창으로 가는 길에서 즉흥적으로 읊다[原州安昌路上 口占]>, 34번째에 수록된 <아침에 일어나 즉흥적으로 읊다[朝起口占]>, 64번째에 수록된 <8월 20일 체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읊다[八月廿日 聞遞職 偶吟]>는 시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문집 처음에서부터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을 중심으로 하는 시를 찾아가다 보니 그 시들이 모두 단편의 절구였다. 그런 점에서 잠정적으로 그의 시 중에서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을 중심으로 하는 시는 단편 절구 형식을 중

www.kci.go.kr

심으로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시들의 창작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문집에서 시의 창작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집의 시들이 창작 시기순으로 배열되었다고 보이지만 완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용한 첫 번째 시의 앞, 문집에서 15번째에 수록된 시가 <경옥재 이보를 애도하며[挽李景玉齋簠]>인데, 이보가 1710년 운명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시를 1710년 이후 어느 시점의 봄 2월에 창작된 시로 보아야 하지만, 인용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가 조덕린이 강원 도사였던 1708년 지은 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시의 경우 이 시의 다음 시가 <임진년 11월 19일 밤에 읊다[壬辰十一月十九日夜吟]>이고 조덕린이 1712년 황해 도사에서 체직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시를 1712년 8월 20일 창작된 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인용한 시들은 대체로 1700년 초반 무렵부터 1712년 사이에 지은 시가 된다.

이 시기는 조덕린의 나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로, 모친상 이후 고향에 물러나 있다가 지방관으로 잠깐 나갔던 시기이다. 그의 생에서 비교적 평탄한 시기였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인용한 시는 갈등보다 흥의 정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 흥의 정서가 별다른 진폭을 보이지 않는다. 언뜻 보면 무미건조하다고 할 정도로 감정의 진폭이 드러나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 왜 이 시를 지었는지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이 시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잔잔한 여운이 느껴진다. 첫 번째 시에서 봄의 경치와 여유를 즐기는 조덕린과 두 번째 시에서 가만히 고향을 떠올리며 회상에 잠기는 조덕린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이 시가 그 순간 느낀 조덕린의 진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 시와 네 번째 시를 보면 그가 관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 원주의 관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맑게 갠 아침 경치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잠시 트였다고 한 것이나, 체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을 나는 갈매기를 친근하게

www.kci.go.kr

여기는 태도는 관직을 굴레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시를 창작하는 그 순간 조덕린은 잠시나마 위안을 주는 아침 풍경에 무한한 기쁨을 느꼈고, 네 번째 시를 창작하는 순간 벼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시원함을 느껴 시를 쓰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그의 시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가만히 따져보고 깊이 살펴봐야 그 감정에 다가설 수 있다. 흥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성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주지적(主知的)이고 이지적(理智的)인 시는 조덕린이라는 인물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 그래서인지 조덕린의 시는 입체적이기보다 평면적이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기보다는 평면적인 회화미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소리보다는 장면화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감정의 극적인 노출이나 표현을 억제했지만, 억제된 그의 흥은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잔잔하게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난해한 표현이나 과장된 수식, 잘 꾸민 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면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그의 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리를 거세하고 평면적 회화미를 중심으로 한 창작 방법은 조덕린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은 수양을 추구한 시나 경물의 묘사를 중심에 둔 시에서도 볼 수 있다.

中秋十五夜	중추절 십오일 보름날 밤
淡淡天無陰	맑디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白月照寒水	환한 달이 시린 물을 비추어주니
一般千載心	천 년 전의 그 마음과 다 같은 거지.

이 시는 문집에서 133번째에 있는 <기유년 추석 밤에 읊다[己酉秋夕夜吟]>라는 시로 1729년에 지은 시이다. 이 시는 흔히 도학시라고 하는 염락풍(濂洛風) 계열의 시이다. 이 시를 쓸 때 조덕린은 동부승지를 거쳐 우부

www.kci.go.kr

승지와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물러나 있었는데, 귀양의 고난을 겪은 뒤 이인좌의 난을 거쳐 정치적으로 재기했지만, 관직을 모두 버린 조덕린은 자신의 학문 수양과 후학들의 교육에 매진했다. 그래서인지 이 시에는 수양을 추구하는 조덕린이 강하게 드러난다.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의적 의미로 점철되어 있다. 첫째 구부터 셋째 구까지는 중추절 밤의 풍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본연의 순수함을 온전히 갖춘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추절 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시린 물을 환히 비추는 밝은 달은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상황으로 소옹(邵雍)이 <청야음(淸夜吟)>에서 "달은 하늘 가운데 이르고, 바람은 물 위에 불어오니, 이 순간의 맑은 의미를, 아는 사람 아마도 많지 않으리[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라고 읊은 바로 그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덕린은 이 시간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천 년 전 성인의 그 마음과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주자의 <재거감흥 20수(齋居感興二十首)>에 나오는 "천 년 전의 마음을 살펴보면, 가을 달이 찬 강물을 비추는 듯하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라는 구절을 따온 것으로, 천 년 전 성인의 마음과 이런 시간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시는 그런 상황 그런 시간 속에서 가지는 성인과 같은 마음을 언제나 변치 않고 영원히 지켜나가겠다는 조덕린의 의지를 표현한 시가 되는데, 시의 표현 기법만을 보면 앞의 시와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風得琴聲暑得陰	바람 불면 거문고 타고 날 더우면 그늘 주는
共君長保歲寒心	그대와 함께 세한 마음 길이 지켜보려니
自生自老空山上	텅빈 산 그 위에서 절로 나고 늙는 것이
何似移來處士林	어찌 처사 숲으로 옮겨 오는 것 같겠나.

www.kci.go.kr

이 시는 문집에서 50번째에 나오는 <소나무를 옮겨 심으며[移松]>이다. 시가 배열된 순서로 보아 조덕린이 강원 도사로 있으며 지은 시로 보이지만, 창작 시기나 장소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조덕린은 바람이 불면 거문고 소리를 들려주고 날이 더우면 그늘을 지워주는 소나무에 무한한 애정을 느꼈지만, 그가 소나무를 아낀 본질적인 이유는 소나무의 세한고절(歲寒孤節)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소나무를 곁에 두고 소나무와 함께 그 세한고절을 함께 지켜가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텅빈 산 그 위에서 절로 나고 늙는 것이, 어찌 처사 숲으로 옮겨 오는 것 같겠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고결한 절개를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소나무를 달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조덕린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 시는 간결하고 단순한 표현 속에 자신의 의지와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시이다.

崎嶇石逕斷還續	끊어질 듯 이어지는 높고 험한 돌길을
努力躋攀眼忽明	힘을 다해 올라 보니 눈앞 홀연 환한데
塔廟湧霄金錯落	하늘 솟은 사찰은 흩뿌려진 금빛이고
岡巒拔地玉崢嶸	땅을 박찬 높다란 산 우뚝 솟은 옥 같으며
鶴歸華表雲無迹	학은 화표 되갔는지 구름조차 자취없고
龍入滄溟水有聲	용이 창명 들었는지 물은 소리 요란하니
不待別尋蓬島去	달리 봉래 그 섬을 찾아갈 필요 없지
可堪從此脫簪纓	여기라면 벼슬 벗고 살아갈 수 있을테니.
瘴風蜒雨路漫漫	독한 바람 장맛비에 길은 굽이 멀고 먼데
踏遍名區指涅槃	좋은 경치 두루 보고 금강산을 가보려 해
三日浦中乘小艇	삼일포 그곳에서 작은 배를 올라탔고
百川橋上駐征鞍	백천교 그 위에서 가던 말을 멈췄는데

www.kci.go.kr

噴流觸石難分語　　바위 닿는 물줄기에 말소리는 어지럽고
絶磴連雲不記盤　　구름 잇는 돌계단은 밑바닥을 모를 테니
向晩高峰聊騁望　　해 질 무렵 높은 산에서 그저 멀리 바라보면
海天秋盡大荒寒　　가을 끝의 바다 하늘 너무나도 황량하겠지.

위에서 인용한 첫 번째 시는 문집에서 37번째에 나오는 <불영사를 두고 쓰다[題佛影寺]>이고 두 번째 시는 41번째에 나오는 <고성 해산정에서 묵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말 위에서 읊다[宿高城海山亭 入金剛山 馬上口占]>이다. 이 시들은 앞에서 살펴본 시와 달리 적지 않은 문학적 기교가 보이는데, 이는 이 시들이 율시이기 때문이다. 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는 평성 경(庚)운을 사용하여 천축산에 있는 불영사와 그곳에서 느낀 감정을 묘사한 시이다. 율시의 평측과 대(對)를 충실히 지킨 7언율시 평기식 수구불압운형으로, 네 연(聯)에서 각기 다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시의 수련(首聯)은 천축산 불영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불영사를 찾아가기 위해 높고 험준한 천축산을 올라 겨우겨우 도착해 보니 눈앞이 환희 트일 정도라고 했다. 이런 표현은 불영사라는 공간을 속세의 때가 미치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 즉 신선계로 만들어준다. 함련(頷聯)은 멀리서 본 불영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천축산을 올라가며 바라본 불영사는 하늘 높이 솟아 금빛으로 빛나고, 불영사를 안고 있는 천축산은 땅을 박차고 솟아 푸른 옥같이 빛난다. 함련에서는 불영사[塔廟]와 천축산[岡巒]의 탈속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 높이 솟은[湧霄]과 땅을 박차고 오른[拔地]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했고, 불영사와 천축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흩뿌려진 금빛[金錯落]과 우뚝 솟은 옥[玉崢嶸]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 연은 앞 구의 7자(塔廟湧霄金錯落)와 뒤 구의 7자(岡巒拔地玉崢嶸)가 상하로 모두 대를 이룬다.

경련(頸聯)은 불영사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앞 구는 요동(遼東) 사람 정

www.kci.go.kr

영위(丁令威)가 신선이 된 뒤 학으로 변해 고향을 찾아가서는 요동 성문의 화표주(華表柱)에 앉았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학이 화표주로 되돌아갔는지 구름조차 자취 없다는 것은 불영사를 정영위가 떠난 시간이 멈춘 신선 세계로 묘사한 것이고, 뒤 구는 깊은 바닷속에 잠긴 용이 요동치는 듯 물소리가 세차게 들린다는 것으로 불영사에서 들은 물소리를 바탕으로 불영사를 용이 사는 신선 세계로 묘사한 것이다. 경련 역시 함련과 같이 앞 구의 7자(鶴歸華表雲無迹)가 뒤 구의 7자(龍入滄溟水有聲)와 상하로 모두 대를 이룬다. 미련은 이런 불영사에 오른 조덕린의 감상이다. 조덕린은 불영사가 바로 신선 세계이니 신선이 사는 봉래섬을 찾아갈 필요 없고, 또 그러니 이곳에서 벼슬을 버리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고 여긴 것이다. 미련으로 볼 때 이 시는 수미상관(首尾相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두 번째 시는 조덕린이 강원 도사로 있으면서 금강산을 유람하기 위해 가면서 쓴 시이다. 이 시 역시 첫 번째 시와 같이 율시의 평측과 대(對)를 충실히 지킨 시로, 평성 한(寒)운을 사용한 7언율시 평기식 수구불압운형이다. 금강산을 찾아가는 설렘과 여정의 험난함 속에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담은 시인데, 백천교에서 금강산을 바라보고 느낀 감정을 담은 시이다. 시의 수련은 금강산을 찾아가는 여정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견디며 금강산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조덕린은 장기(瘴氣)가 서린 듯 매서운 바람과 쏟아지는 비에 길은 멀고 힘들기만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모두 뚫고 금강산으로 향한다고 했다. 함련은 금강산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다. 금강산으로 가기 전 고성의 삼일포에서 작은 배를 타고 놀았는데, 이제 금강산 아래에 있는 백천교에서 말을 멈추고 구경한다고 했다. 함련 역시 앞의 시와 같이 앞 구의 7자(三日浦中乘小艇)와 뒤 구의 7자(百川橋上駐征鞍)가 모두 상하로 대를 이루는데, 지명과 도구, 동작에서 대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경련과 미련은 백천교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을 담았다. 경련

www.kci.go.kr

에서 바위에 부딪혀 울리는 물소리에 주변 사람의 말소리를 분간하기 어렵고, 구름과 이어질 정도로 까마득한 돌계단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바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동적인 표현은 조덕린의 시에서 드물게 보이는 것인데, 그가 시에 대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그가 금강산 입구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과장이나 미화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연을 통해 조덕린이 백천교 위에서 들은 물소리와 그곳에서 바라본 금강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 연도 함련과 같이 앞 구의 7자(噴流觸石難分語)와 뒤 구의 7자(絶磴連雲不記盤)가 모두 상하로 대를 이룬다. 미련은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조덕린의 상상이다. 해 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금강산의 정상에 오르면 그저 멀리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가을 끝날 무렵의 바다와 하늘이 너무나도 황량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미련 마지막 구의 황량함[荒寒]은 단순히 쓸쓸하고 차가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황한고담(荒寒枯淡)을 의미한다. 즉 쓸쓸하고 차가운 속에서도 속되지 않은 우아하고 고상한 아취(雅趣)를 뜻하는 것으로, 공자가 태산에 올라서 천하가 작다[登泰山而小天下]고 한 것처럼 하늘 높이 솟은 금강산의 정상에서 바라보게 될 천지의 모습과 우뚝 솟아 천지를 압도하는 금강산에 대한 조덕린의 경외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조덕린의 시를 살펴보면 조덕린이 시에 익숙하지 않았다거나 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의 시는 한시의 창작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작법을 충실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과하지 않은 수식과 꾸미지 않은 표현 속에 대상에게서 얻은 진실을 온전하게 담아 잔잔하면서도 깊은 흥취를 전한다. 특히 조덕린이 절구와 율시의 창작에서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형식에 따른 한시 창작 방법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형식을 통해 추구한 것이 달랐음을 의

www.kci.go.kr

미한다. 그런 점에서 그가 시의 창작에 주력하지 않았다거나 많은 시를 남기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의 시를 낮추어 보거나 그의 시가 도달한 경지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4. 결론

현재 전하는 조덕린 관련 자료를 볼 때 조덕린을 문인이나 작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의 생애가 그럴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작품의 양으로 보았을 때도 역시 그렇다. 그보다는 그를 조선 후기 당대 노론 집권 세력에 의해 고난받았던 영남 지역의 학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아 전하는 기록이나 그가 남긴 문집으로 보았을 때 이런 평가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창작한 문학 작품을 도외시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될 수 없다. 이는 그의 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시가 불과 244수에 지나지 않고, 감정을 표면에 노출하기보다 시의 이면에 깊이 감추어 감상적이기보다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의 시는 그가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가만히 따져보고 깊이 살펴보아야 그래야 그 감정에 다가설 수 있을 정도로 무미건조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조덕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추구했던 주지적이고 이지적인 이미지 중심의 표현 기법은 그의 시를 평면적으로 만든다. 소리를 억제하고 역동적인 표현을 배제하는 그의 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런 그의 시가 오히려 깊이 있게 다가온다. 감추어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그 진실이 더 크게 느껴지듯 그의 시는 잔잔함 속에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다.

조덕린의 시를 보면 그의 시가 그의 삶과 같은 궤에 있는 것으로, 문학적

www.kci.go.kr

성과보다 삶의 진실을 담고자 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조덕린의 시에 드러나는 감정은 진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급격한 파동(波動)을 타고 격렬한 파장(波長)을 그리지 않는 그의 시가 오히려 더 깊고 긴 여운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조덕린의 시는 험벽한 글자나 난해한 고사, 특별한 수사적 기교 없이 그가 마주한 상황, 느낀 감정을 담담하게 묘사할 뿐이지만, 그 묘사는 그 상황에서 조덕린이 느낀 감정을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전한다. 그의 시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감정이 허위나 가식이 아니라 수양으로 이루어진 진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덕린의 시는 인위적 기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덕린을 문인으로 월등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시가 앞서 언급한 일정한 성취를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시는 문인의 시라기보다는 수양된 인격을 지닌 학자의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는 작가 의식을 지닌 문인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학자로 간주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그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타당한 것이고 의미있는 것인가. 현재 전하는 시로 볼 때 조덕린은 분명 문인이라기보다 학자이고, 그의 시는 문학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시는 분명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그의 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당연히 타당하고 의미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남은 작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인이 아니라 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문학 작품을 등한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덕린의 작품 전체에 한층 더 깊이 있게 다가가 그의 생애와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그의 시에 이어보면서 작품 한 편 한 편에 더욱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趙德鄰 저, 박정민 외 역,『옥천선생문집』1~3,『영남선현문집국역총서』70, 한국국학진흥원, 2023.
趙德鄰,『玉川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46-가1280.
趙德鄰,『玉川集』,『한국문집총간』175, 한국고전번역원, 1995.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김문식,「조선후기 경남과 영남의 교류 양상 - 영양 주실의 한양조씨가를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1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93~120쪽.
金周漢,「趙德鄰의 文學世界」,『인문연구』1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17~37쪽.
안병걸,「조덕순·조덕린 형제의 삶과 생각」,『영양 주실 마을』,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예문서원, 2001, 51~78쪽.
최은주,「玉川 趙德鄰의 親族 관련 祭文에 나타난 애도방식과 의미」,『가족과 커뮤니티』1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215~238쪽.

www.kci.go.kr

ABSTRACT

The Life and Poetic World of Okcheon Jo Deok-rin

Yoon, Jae-hwan

Okcheon Jo Deok-rin was one of the scholars from the Yeongnam region who suffered political hardship under the ruling Noron facti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IThis is evident not only from his life but also from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works he left behind. It is therefore more appropriate to regard him as a representative figure among Yeongnam scholars who endured hardship under the political dominance of the Noron faction during that time. This evaluation is undeniable when we examine the surviving records and his collected writings. However, that does not justify disregarding the literary value of his works.

His poetry, amounting to a mere 244 poems, tends to be rational rather than sentimental, with emotions concealed beneath the surface. Yet, his poems sincerely and transparently reveal the emotions he experienced. Though they may appear dry or plain, his feelings are deeply embedded within them. The intellectual and restrained, image-centered expression techniques he pursued render his poetry rather flat in tone. However, by suppressing sound and excluding dynamic expressions, his poetry avoids flamboyance and instead resonates more deeply.

In reading Jo Deok-rin's poetry, one can see that his poems are aligned with the trajectory of his life. They aim to convey the truth of his existence more than to achieve literary success. Perhaps for this reason, the emotions expressed in his poetry are not dramatic or extreme. Yet, the absence of sharp emotional fluctuations or intense waves in his poems results in a deeper and more lasting resonance.

His poems reflect a path consistent with his life—they aim less for literary achievement and more for conveying the truth of his lived experience. While it is clear that his poetry attained a certain level of

www.kci.go.kr

accomplishment,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his work as that of a cultivated scholar than of a literary writer. He regarded himself as a scholar rather than a writer with a sense of author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his poetry as the work of a scholar.

Key Words Okcheon Jo Deokrin, Okcheon Seonsaeng Munjip, Poetic World, Eulsa Sangso, Yeongnam Namin

논문투고일: 2025.10.22.
심사완료일: 2025.11.11.
게재확정일: 2025.11.20.

www.kci.go.kr